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

Study of Social Economy's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Local Economy Crisis

– Focus on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of Social Economy –

Hak Sil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 social economy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on the confrontation of local's social economy cris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s in rapid progress. However, the research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s very rare. Hence, this research is focused on intermediary's priority role considering viewpoint of participants that are involved in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 and etc). Expectations from social economy organization fo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are high. Nevertheless, in reality, the recogni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s well known as public administration's delivery system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role was limited to governments' policy delivery, certification support and consulting. For the research, analysis methods have been chosen to be AHP, IPA. The results are shown below: AHP analysis, high-ranking are public procurement assistance and support market expansion. IPA analysis, the highest area of the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are expanding market sector(market expansion support, public procurement support, development of co-branded) and area of capacity building(new participants training,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As this study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9-413-B00031)

** Tel. +82-43-261-2201. Fax. +82-43-273-2197. E-mail. khaksil@chungbuk.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e. 12, 2014 / Revised: July. 11, 2014 / Accepted: July. 25, 2014

shows,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role in preparation for market expansion is urgent. This research emphasizes on rebuilding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n social economy.

Key words: intermediary organization,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IPA, AHP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제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희소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의 기대를 반영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인식되어 정부 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인증지원, 컨설팅에 역할이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IPA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AHP 분석결과 판로확대지원과 공공조달지원 등의 시장확대 영역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IPA 분석결과 우선적 시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시장확대 부분(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과 역량강화영역(신규참여자 교육, 성공사례 개발)이 나타났다. 두 개의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 판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써,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적 지원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IPA, AHP

1. 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운데 최근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일찍이 복지와 실업, 빈곤과 사회서비스의 수요 확대 등의 사회경제 위기를 먼저 겪은 유럽이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조합원 위주의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로 변신하였다. 캐나다 퀘벡은 1990년대 지역경제위기로 고실업, 지역공동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직면하여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사회적 경제가 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 실직과 일자리, 사회서비스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 경제 영역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이 제정되었다. 2013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지원법)’을 발의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제도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진데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취약계층을 위한 일련의 일자리 사업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주었고,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의존이라는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2014년 5월에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법’,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개별 자치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성 문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와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대안적 경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발의된 내용 중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5조 한국사회적 경제원의 설립과 제16조 사회적 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사회적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근간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가의 경영관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회서비스의 공급 효율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민간의 역량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나타났다.

일찍이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때문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통합하여, 2014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인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경제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점차 기초자치단체들도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을 위해 설립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법률에 담고 있지 않으며, 그 역할에 대해서도 통합지원센터별 역량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중간지원조직은 지금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조직들에게 정부의 입장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과 같은 역할에 한정하기 보다는 지역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조성된 조직 간의 네트워킹에 좀 더 역

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업무는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같은 사회경제 당사자조직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장개척이나 역량강화에 보다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기능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각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조례 제·개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명시와 함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자 한다.

II. 사회경제위기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

1. 사회경제위기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위기는 구사회위기(old social risks)와 구별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기(new social risks)와 관련된다. 신사회위기는 지역에서의 공동체 붕괴, 가족의 해체, 경제 위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신사회위기와 연결된다. 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붕괴되는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지방경제의 대외 의존도 경감과 지역 내 사회적 자본 증식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혁신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OECD(1999)는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서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와 더불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국가와 시민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에서 사회적 경제가 부각되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조합원 위주의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로 변신하였다. 캐나다 퀘벡은 1990년대 지역경제위기로 고실업, 지역공동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직면하여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사회적 경제가 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최석현, 2013).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경제 영역인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업이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업체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2.0%로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은 OECD에 비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문제는 주류경제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영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와 인구사회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다.¹⁾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중간지원기관은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 사이의 중간자로서 조직 사이의 역할을 중재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중간지원기관은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기업과의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경제 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개인(혹은 시민)의 중간에서 양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기능을 하며 대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한다(송복, 1987; 윤건수, 1997: 96 재인용)²⁾. 중간지원조직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지만, 정책 성공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는 다수이다. 중간지원조직은 형태에 따라 정부와 시민영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민간영역으로 이전된 현재에 중간지원조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일부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은

- 1) 현재 충북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는 다양하다. 충북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충북 생산활동인구 중 15~54세의 인구는 60%로 전국의 68.8% 보다 낮으며, 0~14세 연소 인구의 규모가 줄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199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형태가 서서히 중형 인구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율은 3.4%로 나타나 인접의 대전(3.1%), 충남(3.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 사회적기업의 4.0% 차지하고 있고, 2013년 6월 현재, 충북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33개로 전국 사회적기업 828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충청북도, 2013).
- 2)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중간단체 혹은 중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엄재호, 1993:85-88 참고; 윤건수, 1997: 96 재인용). 첫째는 의료보호나 아동교육 혹은 사회교육등과 같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정부가 모두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를 중간단체로 규정하는 경우다. 둘째는 중간조합주의의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나 간섭도 아니고, 시장메카니즘도 아닌 사적인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단체들(예컨대 조합이나 협회 등)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중간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NGO와 유사한 유형을 띤 경우가 많아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등장한 국가는 미국으로,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한 지역 자선단체들의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과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즉 지역사회에서 지역자선단체들의 중복적 활동을 지원·조율하는 형태로 인프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영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지역개발기구(Local Development Agency)로 불리는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등장하였다. 비영리섹터 간의 조정 역할을 주로 했던 미국과 달리 영국은 복지와 관련된 지역의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영역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이들의 활동 촉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자발적 영역 간의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 주는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국은 사회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함께 공공서비스 민영화 도입이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키우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98년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이 성립된 이후,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담당하는 역할로 시민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민, 행정, 기업의 3섹터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다양성·광역성·종합성이라는 NPO의 특성을 살린 NPO주도의 민관산학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1995년 고베 대지진 발생 이후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풀뿌리 시민단체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NPO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NPO에 대한 인재, 자금 및 정보 제공, NPO와 행정, 기업, 주민 간의 중개 기능, 주민과 지역의 수요 파악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NPO지원센터, NPO의 증가와 꾸준히 성장한 서포터 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은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2011: 16-17; 고재경 외, 2012: 31-32 재인용).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처럼 발생 배경이 상이함에 따라 개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각부(2002)는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교류를 조정하는 조직 다원적 사회에 있는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간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간의 중개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사회 그룹이 임무를 성취하도록 역량강화 서비스와 자원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가치 지향적인(value-based) 조직(Brown and Kalegaonkar, 2002) 연결과 지원을 통해 다른 조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Briggs, 2003),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혁신과정을 지원하는 협력적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제3자(Howard Partners, 2007)로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력을 높이고 운영지원을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경제영역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그 비중이 작거나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1: 16). 때문에 사회경제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는 NGO 조직이나 이를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최근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 영역은 크게 3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특성과 정의에 대한 연구(이권형, 2011; 정세국, 2011; 정수화, 2011),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에 관한 연구(엄형식·마상진, 2011; 정수화, 2011), 유형에 관한 연구(엄형식·마상진, 2011; 김종수, 2011; 정수화, 2011, 이상엽·정건수, 2011)이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영역과 사회적기업 사이를 매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유럽연합의 연구프로젝트였던 RISO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적 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파이낸싱,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권형(2011)은 ‘공공부문,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일반시민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활동을 연계해 주는 조직으로, 생산관리, 인사, 재무, 교육훈련, 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가 지원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정세국(2011)은 ‘기업 현장과 공익가치의 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컨설턴트 집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수화(2011)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으로 정의한다.

결국 중간지원조직은 외적으로 주민 및 시민단체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자들을 융합 조절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내적으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계획이나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공동체가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엄형식·마상진(2011)은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를 수행하였다.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방문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유럽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3가지 유형(컨설팅 기관 형태, 연합체 형

태, 컨소시엄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³⁾.

김중수(2011)는 유럽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에서 유럽의 사례를 들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토트네스전환마을(Transition Town Totnes: TTT) 사례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자본 형성, 공동체 자산의 활용, 전환(내적 운동의 외적확산)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토트네스 사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은 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획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도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공급이 필요하다는 점, 중간지원조직 내 상호학습조직을 형성하여 주민과의 공동목표를 설정,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작은 성공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사회경제의 틀에 맞추어 지역 커뮤니티의 재조직화와 필요, 지역의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중간지원조직 협의체를 형성하여 중간지원조직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수화(2011)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4개 시군지자체와 5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9개 (예비)사회적기업과 영국을 방문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상황이 통일성과 체계성이 없으므로 초기에는 관주도로 추진 운영되어야 하며, 이후 안정화의 단계에 이르러 전문적인 민간의 독립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에 있어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자원 지원구매 조달과 같은 사업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 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부-광역- 기초 단위의 전달체계 정비, 유사사업의 모든 관련된 조직형태를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로는 마상진(2011: 13)은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연구하면서 일본 NPO 지원시설의 형태를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상엽·정건섭(2011: 229)은 ‘커뮤니

3) 컨설팅기관형태는 개발·지원기능으로 특화된 조직이면서 기본적으로 내부자원동원에 의존하기 어려운 성격을 보이는데 영국의 CDA, 스웨덴의 LKU, 벨기에의 사회적 경제 컨설팅 기관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체 형태는 일찍이 사회적 경제가 발전해 온 유럽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체 회원들의 대표체로서 뿐 아니라 회원들과 잠재적 회원인 예비 설립자들에게 다양한 개발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주로 이탈리아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체인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공익협동조합은 CGSCOP, 스페인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이니셔티브 협동조합은 COCETA이다. 컨소시엄·그룹의 형태는 사업연합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컨소시엄이 단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존중하는 반면, 그룹은 단위 협동조합이 그룹에 권한의 일정부분을 양도하고 그룹의 경영지도를 따라야 하는 점에서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이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공공의 사업적 실천을 위해 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동기이지만, 그룹의 경우는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동질성이나 특정한 연대적 동기에 기반함으로써 사업적 실천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소시엄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주로 발전한 반면, 협동조합 그룹은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사례가 있다.

티 비즈니스 발전방향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공무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방자치단체주도의 전문가 운영형, 외부기관 위탁형, 순수 시민단체 운영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단(2011: 29-31)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에서 운영형태에 따라 상설형, 임시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업방식에 따라 종합지원형 중간조직, 특정분야지원형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범위에 따라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제시한다. 1) 지역사회 혹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조직, 정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2) 역량강화를 통해 단체나 기구의 활동을 촉진-조직 혼자서는 수행하거나 동원할 수 없는 특화된 기술, 전문성, 지식, 네트워크, 영향력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부문,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 3) 단체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공동의 자원과 정체성을 제공-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 환경과 법, 제도 개선 등을 촉구-정부나 자금 제공기관에 대해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프로그램의 활동성과를 홍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4) 단일하게 활동하는 기존의 여러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5) 규모의 경제, 보다 나은 전문가 풀과 경험, 다양한 자원과 노하우의 교환, 공동의 활동을 통한 연대감과 지원, 시민의 인식 증진 등을 바탕으로 단일한 조직이나 단체가 성취할 수 없는 활동 전개, 6)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금을 제공해 주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현장의 정보를 제공(Schorr, *et. al.*, 2010)등이다.

3.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같이 한다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컨설팅과 교육, 정보전달 등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다. 2007년도에 7개로 시작했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단위로 운영하면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실사와 기초조사 등 인증

4)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설립지원기관, 운영지원기관, 회계지원기관, 홍보지원기관으로 구분되었다. 2008년에는 동일한 형태의 구분에 의거 9개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23개의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분야별 지원조직 운영 방식에서 권역별로 변경되었고, 각 권역의 유관조직 통합을 추진하여 서울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경기인천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정부중심의 지원조직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조직의 중심점 이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자체로 구분되어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권역별 지원조직과 특화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정수화, 2011: 13-15).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책 전달 등이었다.

2012년 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지역내에서 설립하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3년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7개 권역에서 운영하였다. 2014년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15개 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명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경기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강원	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대구/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경남	(사)경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광주	(사)광주NGO시민재단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남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제주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충북	(사)충북사회적 경제센터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 지원 사업 심사지원 및 모니터링(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수익 연계모델 개발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일자리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지원, 대부사업 등의 지원 대상 심사 선정 시 사전검토 의견제시, 지방노동관서의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모니터링업무지원), 2) 사회적기업인증지원(사회적기업제도 및 인증요건 절차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간담회 개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조직전환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상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요건 회계포함 충족여부를 사전검토하고 현장실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지원), 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지원(회계, 노무, 법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상시 제공,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의 회계 관리 개선을 위한 상용회계 프로그램보급 및 회계교육실시), 4)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자율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체제를 마련, 전국단위의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구축 연구자 포럼 구성운영을 지역단위에서 지원), 5)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교육지원(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참여기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특화된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 6) 지역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중앙단위의 프로보노 전문성기부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보노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에 알선, 기타 사회적기업지원을 희망하는 다양한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에 연계), 7)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등(관할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 발굴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홍보자료 제작 배포 및 기존홍보 자료업데이트,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지역별 사업 활동, 진행현황,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사업진행 중에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등재, 정보의 생산 유통 및 모든 사업의 수행이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 8)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하는 업무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추가되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내각부(2002)의 고베시 마을만들기 연구소에서는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 자원과 기술의 중개기능/ 인재육성기능/상담 및 컨설팅 기능/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기능/ NPO 평가기능/정책제안 기능/조사연구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2011)는 광역단위에서의 역할로 사회적기업가 교육 훈련 및 육성/시군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연구 및 정책수립/사회적기업 심의 및 지정 지원/광역단위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통합운영지원/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및 환경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 매뉴얼(2011)에서는 정보교류기능/ 기술, 자원 중개기능/ 인재육성기능/ 조사연구/ 상담 및 컨설팅 기능/ 네트워크 기능/ 자금조달기능/ CB 평가/ 일본의 CB 중간지원조직에서는 기업설립지원/ 운영지원/ 사업추진지원/ 자금조달지원/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터/ 조사연구를, 한국농촌연구원(2011)에서는 조직역량강화: 정보수집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컨설팅/지역 내·동종 사회적기업 간 연계 및 교류 촉진/ 외부자원연계(물적, 인적):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재정지원, 홍보와 마케팅, 정부와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분류하면 11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네트워크 및 교류, 교육훈련 및 육성, 상담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고, 심의 및 지정은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제시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는 공공구매와 같은 시장 확대 영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2>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기관별 중간지원조직 역할 구분

	고베시 마을만들기 연구소	경기도사회적기 업중간지원조직 (광역)	커뮤니티비 즈니스운영 매뉴얼	일본 CB 중간지원조 직 역할	한국농촌연 구원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네트워크 및 교류	○	○	○	○	○	○
교육 훈련 및 육성	○	○	○	○	○	○
상담 및 컨설팅 기능	○	○	○	○	○	○
사업운영 지원	○	○		○		○
평가와 조사, 정책제안	○	○	○	○	○	
기술, 자원중개 (자금조달)	○	○	○	○	○	
기반조성		○				
심의 및 지정		○				○
기업설립				○		○
홍보/ 마케팅					○	
모델발굴						○

유립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자체가 당사자 조직으로 우리나라처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중간전달체계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이 요구하는 중요도와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사회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정착을 위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I. 조사설계

1. 분석방법

1) AHP방법

AHP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잡한 경우, 계층화(hierarchy)하여 각 단계별로 요인들 간의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Satty, 1980).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척도는 9점 척도를 활용하

며, 중요도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의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치(eigenvalue)를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모든 단계의 요소들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가 계산되면 일관성 검정을 실행하며, 이 때 비일관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계산한 후 이를 제시된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즉, $C.R.(=C.I/R.I)$ 의 값이 10% 이내인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인정한다. AHP의 유용성은 계량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의사결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쌍대비교를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Vargas, 1990), 많은 연구에서 중요도 및 가중치 도출 시에 활용되고 있다(한상용 외, 2007; 김문수 외, 2008; 나란희 외, 2010).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 척도화하여 계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홍이슬, 2010: 3). 본 연구의 설문지 분석을 위해서는 Excell을 활용하여 일관성지수와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2) 중요도-만족도 연관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artilla & James(1977)에 의해 개발된 IPA 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 중요도 및 만족도를 수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비교분석함으로써 강점과 약점을 판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IPA는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Martilla & James, 1977) 평가대상의 중요속성들에 대하여 중요도 및 성취도간의 연관관계를 평가하여 참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이용 후의 실행도를 평가하여 각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림 1>과 같이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성과로 구성된 2X2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며, 각각의 영역은 중점개선영역, 점진개선영역, 유지강화영역, 과잉투자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Ⅲ사분면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가 낮은 영역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나타내며, Ⅳ사분면은 점진개선 영역으로 중요도 및 성과도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Ⅱ사분면은 유지 강화 영역은 중요도도 높고 성과도 높기 때문에 차별적 우위 요소로서 유지 강화 시켜 주는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며, Ⅰ사분면은 과잉투자 영역으로 낮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잉투자요소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Martilla and James, 1977). IPA는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진 대상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속성의 평균값과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용기 외,

2005).



<그림 1>PA 그래프

2. 연구변수 선정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고를 위한 여러 요인들 중 중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였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참고한 후 요인을 선정하였다. 설문에 들어 가기 앞서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거쳐 연관성이 있는 변수를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변수 선정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영역별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5개 영역별로 다시 3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였다. 구성요인들은 네트워크(자원의 기술과 중개, 정보수집과 전달, 협의회 구성), 역량강화(종사자교육, 신규참여자교육, 성공사례 발굴), 운영지원(상담 및 컨설팅, 설립 및 인증지원, 평가관리), 정책연계(전략수립, 정책제안, 조사·연구), 시장 확대(판로확대 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요인

영역	요인	내 용
네트 워크	자원과 기술의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사람, 물건, 돈 등)의 발굴: 프로보노 발굴,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로 자원과 기술(마케팅, 협력)을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결
	정보수집과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기업 등 각 주체와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의 개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지역 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민간기업 포함
역량 강화	중사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전문역량 교육: 재무, 회계, 인사 등
	신규참여자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있는 신규 참여자 모집과 발굴, 교육
	성공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성공사례 발굴하여 확산
운영 지원	상담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을 위한 노하우 제공과 컨설팅: 경영전략, 마케팅 및 홍보, 시장조사, 상품개발, 조직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설립 및 인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이나 인증 준비 단체 및 기관 지원: 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작성지원, 신청서 접수 후 실사 및 검토의견서 작성 등 지원
	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조직활동 실태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지원과 관리
정책 연계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 전략 수립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사회적 경제 홍보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연계
시장 확대	판로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조직 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내부시장 조성
	공공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서비스 및 상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제안작업 협력(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제안시 중개역할)
	공동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로 특화된 공동 브랜드 개발 총복형 공동 브랜드 개발

3. 자료수집과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참고문헌과 각종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문항을 만들어 작성하였고, 이러한 문항에 추가할 사항에 대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와 몇몇 전문가들을 통해 보정이 이루어졌다. 보정된 문항으로 AHP 설문지를 만들어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0부를 배포하여 50개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일관성지수가 낮은 설문지를 제외한 28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단계는 IPA 문항을 만들어 사회적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주로 사회적기업의 CEO나 관리자급들로 중간지원조직과 접촉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단계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충북의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97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68개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63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역할 IPA결과

충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인식하는 충북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위한 중요도 평균은 7.28, 만족도 평균은 5.05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요도는 매우 높은 반면, 만족도 평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증대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의 유의적 차이 검증을 위한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4〉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대분류	중분류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t	p
		M	SD	M	SD			
네트 워크	1.자원과 기술의 중개	7.29	2.13	5.03	1.83	2.25	6.682	.00
	2.정보수집과 전달	7.56	2.10	5.42	1.96	2.14	7.112	.00
	3.협의회 구성	6.73	2.81	5.16	2.29	1.56	4.215	.00
역량 강화	4.종사자교육	7.22	2.22	5.13	1.95	2.09	6.472	.00
	5.신규참여자교육	6.70	2.13	4.60	2.04	2.10	6.055	.00
	6.성공사례 발굴	7.03	2.28	4.98	1.93	2.05	6.042	.00
운영 지원	7.상담 및 컨설팅	7.38	2.05	5.63	2.17	1.75	5.921	.00
	8.설립 및 인증지원	7.62	2.30	6.18	2.45	1.44	3.696	.00
	9.평가관리	7.06	2.27	5.44	2.33	1.62	5.13	.00
정책 연계	10.전략수립	7.60	2.02	5.18	2.05	2.42	7.301	.00
	11.정책제안	7.77	2.06	5.10	2.18	2.68	7.199	.00
	12.조사연구	7.32	2.20	4.89	2.18	2.44	7.828	.00
시장 확대	13.판로확대 지원	7.65	2.35	4.56	2.15	3.09	8.074	.00
	14.공공조달 지원	7.68	2.39	4.28	2.06	3.40	8.83	.00
	15.공동브랜드 개발	6.63	2.24	4.13	1.88	2.51	7.83	.00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 15개의 항목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수행에 대한 항목별 IPA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수행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정책제안(7.77), 공공조달 지원(7.68), 판로확대지원(7.65)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중요도나 낮은 항목으로는 공동브랜드 개발(6.63), 신규참여자 교육(6.70)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구성항목은 설립 및 인증지원(6.18), 상담 및 컨설팅(5.63), 평가관리(5.44)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공동브랜드 개발(4.13), 공공조달지원(4.28), 판로확대지원(4.56)으로 조사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공공조달지원으로(3.40), 판로확대지원(3.09)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위한 가중치 산정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제고를 위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AHP 방법을 적용하여 영역간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역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항목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관성지수(CI)는 0.00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장 확대(판로확대 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가 0.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강화(종사자교육, 신규참여자교육, 성공사례 발굴)가 0.237, 운영지원(상담 및 컨설팅, 설립 및 인증지원, 평가관리)이 0.216, 정책연계(전략수립, 정책제안, 조사·연구)가 0.173, 네트워크(자원의 기술과 중개 정보수집과 전달 협의회 구성)가 0.130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증대를 위한 가중치 분석결과

대분류	가중치	순위
네트워크	0.130	5
역량강화	0.237	2
운영지원	0.216	3
정책연계	0.173	4
시장확대	0.244	1
일관성지수		0.00
일관성비율		0.00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제고를 위해 미치는 영역별 가중치와 각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결합하여 IPA 매트릭스를 구성할 중요도 점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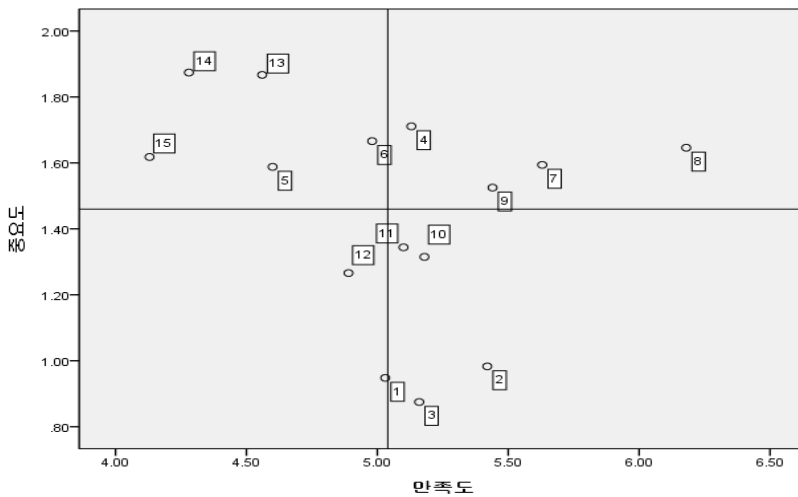
<표 6> 역할 증대의 가중치 결합 중요도

대분류	중분류	가중치*중요도
네트워크	1.자원과 기술의 중개	0.948
	2.정보수집과 전달	0.983
	3.협의회 구성	0.875
역량강화	4.종사자교육	1.711
	5.신규참여자교육	1.588
	6.성공사례 발굴	1.666
운영지원	7.상담 및 컨설팅	1.594
	8.설립 및 인증지원	1.646
	9.평가관리	1.525
정책연계	10.전략수립	1.315
	11.정책제안	1.344
	12.조사연구	1.266
시장확대	13.판로확대 지원	1.867
	14.공공조달 지원	1.874
	15.공동브랜드 개발	1.618

3.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가중치를 통한 IPA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역할 제고에 대한 IPA 매트릭스 격차를 설정하기 위해 중요도와 성취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에 역할 증대를 위한 요인의 중요도는 1.46, 만족도는 5.04를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1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네트워크 영역인 정보수집과 전달, 협의회 구성, 정책연계영역인 전략수립, 정책제안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영역은 현재 상태에서 개선보다는 유지하는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운영지원 영역인 상담 및 컨설팅, 설립 및 인증 지원, 평가관리 모두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량강화 영역 중 종사자 교육도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으로 우선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제3사분면에 해당하는 요인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 확대 부분인 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은 모두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역량강화영역인 신규참여자 교육과 성공사례 개발도 제3사분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런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에는 자원과 기술의 중개와 조사연구로 나타났다.



제3사분면: 우선시정노력	제2사분면: 지속유지
5. 신규참여자 교육 6. 성공사례 발굴 13. 판로확대 지원 14. 공공조달 지원 15. 공동브랜드 개발	4. 종사자교육 7. 상담 및 컨설팅 8. 설립 및 인증지원 9. 평가관리
제4사분면: 낮은 우선순위	제1사분면: 과잉노력지양
1. 자원과 기술의 전개 12. 조사연구	2. 정보수집과 전달(네트워크 영역) 3. 협의회 구성 10. 전략수립 11. 정책제안

〈그림 2〉 중간지원조직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가중치를 반영한 IPA분석결과 제3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우선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적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신규참여자교육과 성공사례 발굴 영역은 역량강화영역에 해당한다. 성공사례 발굴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 성공사례가 적은 편이고 특히 동종업종의 성공을 통한 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 공동 브랜드 개발은 시장 확대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보호된 시장으로써 정부의 공공조달이 주요한 판매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 상품, 여성상공인 상품 등과 경쟁하고 있고, 공공 구매의 경우에도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미달되어 참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영역을 위한 보호된 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구매와 우선구매, 판로지원과 같은 공적영역에서의 지원과 영역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제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2014년 5월에 발의된 사회적 경제 지원법 제4장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특성과 처한 상황, 인증 기간, 업종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돌봄 영역의 경우는 공공구매나 공동브랜드 개발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청소나 환경, 제조 업종의 경우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7> 영역별 IPA분석 결과

영역	요인	가중치를 반영한 IPA분석결과
네트워크	1.자원과 기술의 중개	낮은 우선순위
	2.정보수집과 전달	과잉노력지양
	3.협의회 구성	과잉노력지양
역량강화	4.종사자교육	지속유지
	5.신규참여자교육	우선시정노력
	6.성공사례 발굴	우선시정노력
운영지원	7.상담 및 컨설팅	지속유지
	8.설립 및 인증지원	지속유지
	9.평가관리	지속유지
정책연계	10.전략수립	과잉노력지양
	11.정책제안	과잉노력지양
	12.조사연구	낮은 우선순위
시장확대	13.판로확대 지원	우선시정노력
	14.공공조달 지원	우선시정노력
	15.공동브랜드 개발	우선시정노력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당사자 조직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규모도 영세하여 봉착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경제 지원법에 한국사회적 경제원의 설립,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지정을 제안함으로써 지지되어진다. 위와 같은 결과가 비록 본 연구의 결과는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희소할 뿐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의 연구가 개념이나 당위적 역할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당사자조직의 의사가 반영된 연구의 필요성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는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역할과 기능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의 딸단조직으로 인식되어 정부 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인증지원, 컨설팅에 역할이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규정은 새롭게 발의된 ‘사회적 경제지원법’에서 제안되어져 있는 것처럼, 각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중간지

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 중 중점적으로 개선하거나 집중해야 하는 업무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전문가 조사와 IPA 조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으로 시장 확대 부분인 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이 해당되었고, 역량강화영역인 신규참여자 교육과 성공사례 개발도 우선시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영역은 정책적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기본법 이후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것을 대비하여 통합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업종별, 인증기간별,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훈. 2013. 지방정부 3.0 실현을 위한 New PCR(M(Public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고경훈, 안영훈, 김건위.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1-160.
- 고재경 외. 2012.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미숙, 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5-40.
- 김성기.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논문.
- 김재현, 장주연, 이효정. 201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투자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1사1촌 운동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4(2): 211-224.
- 김정원. 2010. 지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중수. 2011. 유럽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김태곤, 박문호, 김경덕, 김용렬, 허주녕, 김정승, 임지은.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1/3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영. 2009. 조직의 제도적 정당성과 행동적 정당성이 갈등주체에 대한 공중 지지에 미치는 영향: 갈등관리전략과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원석. 2013. 주거복지부문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 마상진.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 한국농촌연구원.
- 마상진. 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연구원 연구보고.
- 민현정. 2012. 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소한나. 2012. 자활공동체의 생존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자원기반이론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56: 31-39.
- 엄형식, 마상진.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자성.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과 NPO 역할에 관한 고찰: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NGO연구. 7(1): 73-107.
- 이중훈. 2014.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 이한주, 이화진. 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 임경수. 2013. 전라북도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간 역할분담 및 발전방향. 원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임성근 외. 2013. 다양한 마을발전사업 수행체계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장수찬. 2013.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NGO연구. 8(1): 1-33.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7: 7-34.
- 정천섭. 2010.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석현 외. 2013.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 최윤주.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방안.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식. 201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제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201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주)명소IMC. 2011.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지식경제부·한국산

업기술진흥원.

충청북도. 2013.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충청북도.

Anglin, Roland V. 2004. *Building the Organizations that Build Communities*.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Paromita, Sanyal. 2006. *Capacity Building Through Partnership: Intermedia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Local and Global Actors*.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Katrina, Goreham Hitchman. 2010.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within Intermediary Organizations*. Canadian Water Network

Peter, L. Szanton. 2003. *Toward More Effective Use of Intermediaries*. Practice Matters The Improving Philanthropy Project, Foundation Center.

김학실: 충북대학교에서 지방 문화산업정책 집행요인과 성과분석: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2005)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책학이며 관심분야는 사회적 경제, 문화산업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AHP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 분석 등이 있다(haksil67@hanmail.net).